

조손가족 청소년의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외로움에 관한 질적 연구*

이옥주** · 유금란***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조손가족 청소년이 대인관계에서 체험하는 외로움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일상에서 외로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 조손가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외로움 경험에 대한 경험적 의미를 도출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를 통하여 탐구하였다. 참여자는 총 8명(중학교 3명, 고등학교 4명, 학업중단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3회의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자별 면담은 사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진행되었으며 연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참여자의 표현으로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외로움 경험의 주제는 4개의 범주, 9개의 주제 군, 24개의 주제가 산출되었다. 연구결과는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조손가족 청소년들은 혼자 지내야 하는 시간이 많고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 정서적 외로움을 자주 경험하였다. 둘째, 조손가족 청소년들의 부족한 가족 자원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이나 친구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으며 셋째, 이러한 또래관계에서의 외로움 경험으로 인해 참여자들은 위축되고 자선감이 적어지기도 하였다. 넷째, 참여자들은 외로움을 경험할 때 슬픔, 상처, 홀로 버려진 듯한 막막함, 긴장,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외로웠던 관계에서 벗어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힘들었던 외로움 경험에 대한 의미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상담에서의 함의 점 및 한계점 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외로움, 조손가족, 청소년, 친밀감, 대인관계, 질적연구

* 이 논문은 저자의 석사학위논문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

** 평택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kyu@catholic.ac.kr

I. 서 론

인간은 특정한 개인과 강한 애정적 결속을 만드는 경향이 내재되어 있으며, 특정한 개인과의 결속관계는 이후 다양한 정서적 문제나 성격, 인간관계 등에 영향을 준다(Bowlby, 1979). 인간의 대인관계욕구는 자기 가치감과 존재감의 근간이 되며 이러한 대인관계 욕구가 좌절된 개인은 삶의 목적성과 의미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권영실, 이해영, 김승철, 2016; Vancouver, Thompson & Williams, 2001).

한편,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시기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 해가는 과도기적 상태이며, 다른 어느 발달 단계보다도 달성해야 할 발달과업이 많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김정운, 2007).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청소년은 새롭게 맺게 되는 타인과 관계에서 사회적 역할 확대를 통한 친밀감을 획득하려는 본연의 욕구를 가지게 된다(김정운, 2007; 장휘숙, 1993). 이 시기의 발달특성상 기존의 사회적 관계에서의 수용과 정서적 유대 외에 친밀감이라는 욕구가 부각되는 것이다(송민선, 박희현, 2012; Sullivan, 1953). 타인과 양질의 상호작용을 하거나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주요 발달과업(Graziano, Brothorn & Bernscheid, 1980)인 청소년기에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경험하는 것은 이후 성인기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권석만, 1995). 특히 또래의 영향력은 다른 어떤 시기보다 청소년기에 최고조에 이르며(Colman, Marilyn, Ganong & Lawrence, 1987) 이 시기의 청소년은 아동과 성인에 비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명남, 2017; Woodward & Frank, 1988).

이미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사회적 상호관계 및 대인관계문제가 외로움과 깊은 관련이 있음이 입증되었다.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80%가량이 대인관계와 관련 있으며(Seiffige-Krenke, 1995), 청소년기 학생들의 고민 중 대인관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6.3%(최명구, 신은영, 2003)에 육박한다. 외로운 사람들은 외로움을 적게 경험하는 사람보다 덜 사교적이고, 덜 주장적이며, 사회적인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으며 사회적인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Hojat, 1987; 장윤아, 2014, 재인용).

청소년의 외로움은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정서적 친밀한 상호작용 욕구의 좌절 및 관계에 대한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평가에 따른 고통스러운 정서 상태’라고 정의한다(허정화, 김진숙, 2014). 외로움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관계로부터 격리되어

혼자되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게 되며 청소년이 경험하는 외로움은 보편적이고, 성장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Brennan, 1982), 욕구 좌절 및 불쾌한 정서 상태와 청소년기의 다양한 문제행동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조명남, 2017; Corsano, Majorano & Champretavy, 2006). 즉,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중독 성향이 높으며(Young, 1996) 특히, 게임중독(이형초, 안창일, 2002), 인터넷 중독(김종범, 한종철, 2001)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심해질 경우 중독, 자살 충동, 비행 등 문제 행동이나 관계에서의 위축과 좌절 등 심리적 부적응 등을 보이기도 한다(정혜경, 2016; Heinrich & Gullone, 2006). 또한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는 청소년은 불안, 불행감과 우울, 자살, 음주와 흡연(김옥수, 1998), 거식증 또는 폭식증(Stewart, 2004), 반사회적 행동, 학교생활 실패와 같은 부적응 문제를 겪을 수 있다(김정운, 2007; Asher & Paquette, 2003; Lyons, 2004).

외로움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도 외로움이 자살이나 SNS 중독과도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혜경, 2016; 손희주, 2016; Schinka, Bossarte & Swahn, 2012). 이와 같이 외로움은 주관적인 고통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인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외로움을 야기하는 요인을 찾아 외로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김정운, 2007)고 할 수 있다.

한편,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조이혼율은 천 명당 2.1명이다(통계청, 2017). 부모의 이혼에 따라 가부장적 친족관계가 뿌리 깊게 남아있는 한국에서는 조부모가 자녀들의 양육을 하는 경우가 늘면서 점차 조손가족으로 구성된 가족 형태도 늘어가고 있다. 1995년 조사에서 조손가족은 35,194가구로 나타났으며, 2000년에는 45,225가구, 2005년 58,101가구로 늘어나(이창식, 박미자, 2009) 10년 만에 그 수가 66%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68,135가구로, 조손세대 아동 수는 116,930명으로 보고되고 있다(통계청, 2010). 가족의 해체 속도가 가속화되고 이혼율 증가와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가족의 안정성의 약화(천미영, 김희정, 2011)를 감안한다면 향후 조손가족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조손은 조부모-손자녀 가정, 조부모와 동거하는 소년소녀 가장 세대, 조부모 손자녀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가장 세대 등으로 불리고 있다(박미자, 2008). 박미자(2008)는 ‘6개월 이상 조부모와 손자녀가 같이 생활하고 일차적인 의식주의 책임을 조부모가 지는 가족’을 조손가족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박미자

(2008)의 정의에 근거하여 조손가족 청소년을 ‘부모가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부모가 함께 거주하더라도 조부모가 일차적인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만 13세~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조손가족에 관한 연구는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정신건강에 관한 소수의 연구물에 불과하다(최해경, 2002). 부모가 경제활동으로 자주 집을 비우는 이혼가정이나 조손가족 청소년의 경우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혼자 지내며 외로움을 경험하게 됨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가정의 해체를 경험하는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에 대해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으며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부모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생각과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한다(정순원, 2009). 이와 같이 취약한 가족의 건강성은 자녀의 정서, 심리적인 문제에서부터 또래 비행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이옥실, 2009). 조손가정의 조부모는 가족 해체로 인해 나타나는 손자녀의 행동과 정서의 부적응을 대처할만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조부모들은 사춘기의 손자녀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양육함으로써 세대 간의 갈등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 의사소통의 단절을 초래한다(류정희, 2011). 또한 아이들과 세대 차이를 느껴 손자녀와 소통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손가족의 조부모가 다양하게 겪는 경제적, 정서적,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손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조손가족의 아동은 아동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조부모에게 맡겨져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며 무기력이나 불안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아이들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감소나 단절로 인하여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하며, 친구가 적고, 사회적 기술이 낮아,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주소희, 이정은, 권지성, 2009). 또한 지지와 관심이 부족하여 자신감이 낮아지거나 소극적이며, 의욕이 감소하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부모로부터 버려졌다는 마음에 의기소침하며, 친구와 잘 지내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다(류정희, 2011).

청소년들은 친구와 관계 속에서 얻은 소속감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적게 느끼게 되며(이현정, 1994) 가족들과의 깊은 유대감은 청소년들의 외로움을 덜 경험하게 돕는다(김정운, 2007; Brage, Meredith & Woodward, 1993). 청소년의 친구관계 경험은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가족자원이 비교적 빈약한 조손가족 청소년은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대인관계 기술을

익히고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경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손가족 청소년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해체의 증가와 더불어 조손가족의 증가도 예상되는 바, 이들의 환경과 경험들에서 오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이상에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대인관계의 중요성과 외로움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손가족 현황과 조손가족 청소년들의 정서적 어려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많은 청소년들이 심리적·사회적 발달단계의 특성, 인지적 발달 및 사회적 위치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장윤아, 2014). 이러한 외로움은 개인마다 다양하게 경험하는 주관적 경험으로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원인과 파생되는 결과 또한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청소년의 외로움과 관련한 기존연구들은 스마트폰 중독(김지영, 2017), 인터넷 중독(장정은, 2016) 우울, 불안, 자살(김옥수, 1998)과 같이 외로움으로 인해 파생되는 부적응적 결과에 관해 단편적으로 살펴보고 있어 이러한 변인들이 복합적으로 어떠한 관계와 과정을 통하여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지 충분한 정보를 주고 있지는 못하다. 특히 조손가족에서 양육되는 손자녀의 외로움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조손가족이 가족해체의 결과물이라는데 근거하여 여러 가지 원인을 예측할 뿐이다.

이와 같은 각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고, 현상학적 연구 방법의 하나인 Colaizzi의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Colaizzi의 방법은 연구하려는 현상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 자료의 자원을 신중히 선택하여 그들이 일상세계에서 겪는 경험의 구조와 본질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험의 본질은 주제로 경험의 구조는 주제 모음으로 도출되는 것이 특징이다(강성례, 2012; Colaizzi, 1978).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통하여 조손가족 청소년들이 어떠한 관계맥락을 통하여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어떠한 기제들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박미자(2008)의 연구에서 정의한 조손가족 개념을 근거로 하여 조손가족 청소년을 ‘부모가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하더라도 조부모가 일차적인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본 연구에서 정의한 조손가족 청소년과 상응하는 청소년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여 자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들려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자발적인 청소년을 소개받아 편의 표집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경기도 소재의 청소년이며 고등학생 4명, 중학생 3명, 학업중단 1명으로 총 8명이다. 참여자 선정 시 조손가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다 보니 참여자 대상 모두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관련 기관을 통해 평균 10회기 이상의 상담에서 내담자 경험이 있었다. 참여자의 구체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번호	나이	성별	학업 상태	동거가족	조부모와 동거 이유	조부모 동거 기간	부모 유무	
							부	모
1	15	여	고1 재학	조모	이혼, 경제활동	12년	확인불가	유
2	13	여	중2 재학	조모, 고모, 삼촌	정신건강, 경제활동	8년	유	유
3	18	여	고3 재학	조부모, 부, 형제2	모 사망, 경제활동	8년	유	사망
4	17	여	학업중단	조모, 모	이혼, 정신건강	17년	유	유
5	16	남	고1 재학	조부모, 형제1	이혼, 경제활동	13년	유	유
6	13	여	중2 재학	조부모, 형제1	이혼, 경제활동	11년	유	유
7	15	여	중3 재학	조부모	이혼, 경제활동	13년	유	유
8	16	여	고1 재학	조모, 모, 형제1	경제활동	6년	유	유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8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와 만나 개인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개방형 질문으로 심층면담을 시작하였고, 핵심적인 내용이나 키워드가 나타나면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질문을 반복하고 연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참여자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도록 하였다. 반 구조화된 면접 순서에 의해서만 질문과 답변을 수행하기 보다는 면접 질문들을 미리 숙고하여 편안하게 자신의 경험을 자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참여자별로 면담은 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회 면담 시 약 60분에서 9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사전에 참여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진행되었으며 면담 내용은 모두 녹음하여 필사한 후 반복 청취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2~3회기라는 짧은 면담만으로 참여자의 심층적인 경험을 끌어내기 위해 최대한 참여자와 라포 형성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부드럽고 신뢰로운 분위기에서 면담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가지고 참여자로부터 듣고자 하는 면담 질문을 연구하여 면담에 임하였다. 내용이 불명확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 면담을 실시하여 보완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외로움의 의미와 역동적인 경험의 본질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심층 면접을 바탕으로 하며, 강성례, 이윤정(2015)이 수정 보완한 Colaizzi(1978)의 7단계의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현상학적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주제는 고통, 슬픔, 공포, 기쁨, 상실, 분노 등과 같은 인간의 내밀한 경험이다 (Van Manen, 1994). 현상학적 연구 방법의 하나인 Colaizzi의 연구방법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자료의 자원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그들이 자연스러운 일상세계에서 겪는 경험의 본질과 구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경험의 본질은 주제로 그리고 경험의 구조는 주제 모음으로 도출되는 것이 특징이다 (Colaizzi, 1978). 분석방법을 요약하면 면담 시 녹음된 내용과 기록, 그리고 필사한 내용을 수차례 반복하여 읽는 것으로 시작하여 필사한 내용을 토대로 참여자가 반복

적으로 진술하는 내용과 개별적인 자료를 하나씩 다시 검토하고 의미를 숙고하였다. 도출된 진술들을 가지고 의미를 구성하였으며 구성된 의미들을 묶어 주제모음으로 범주화 하였다. 마지막단계에서는 참여자 경험의 의미 구조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8명의 참여자 중 4명에게 추가 면접을 요청하였고, 참여자가 전달하려고 했던 의미가 연구자의 분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4.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Guba와 Lincoln(1989)의 평가 기준에 따라 사실적 가치와 적용성, 일관성과 중립성의 네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여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이현심, 박주현, 최덕경, 2011; 김기창, 2015). 첫째, 사실적 가치(true value)에서는, 인터뷰 후 연구자가 인터뷰한 내용과 기록을 요약하여 참여자에게 재확인 절차를 가짐으로써 연구자가 이해한 내용과 참여자가 기술한 내용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다. 둘째, 적용성(applicability)의 확보는 연구 참여자의 진술을 토대로 찾아진 구성 의미들을 명목화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의 새로운 주제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하여 수집하였다. 셋째, 일관성(consistency) 측면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객관적 시각 확보를 위해 연구자는 일정 기간을 사이에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검토하였다. 넷째, 중립성(neutrality) 측면에서는 연구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외로움 및 청소년의 외로움의 주제 관련 자료와 경험 사례집들을 수시로 읽고 접하면서 연구 과정 및 결과에서 나타나는 편향성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와 해석에 대하여 참여자 4명에게 추가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상담심리학 박사 2인의 감수를 받아 신뢰성과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에 대하여 8명의 연구 참여자에게서 나타난 의미 있는 진술은 4개의 범주, 9개의 주제 군, 24개의 주제로 도출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도출된 주제, 주제군, 범주

주제	주제군	범주
▪ 사람의 온기가 없는 집 ▪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해 스스로 해결해야 함 ▪ 엄마 아빠가 없어서 서러웠던 순간들	세상에 혼자 방치된 것 같음	부모님이 부재한 일상
▪ 나를 존중해주거나 사랑해 주지 않음 ▪ 가슴에 비수가 되어 박힌 말들이 상처로 남음	내 마음을 알아주는 가족이 없음	
▪ 놀림의 대상이 되어 친구들과 어울리기 어려움 ▪ 학교 내 활동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됨 ▪ 초라한 내 모습이 비참하게 느껴짐 ▪ 절망감과 깊은 슬픔	긴장되기만 한 학교생활의 어려움	외로움의 연속
▪ 친구들과 거리두기를 함 ▪ 의미 없는 SNS나 게임을 하는 시간이 많아짐	나만의 벽을 쌓고 스스로 물러남	
▪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짐 ▪ 친구에게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감	과거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변화하고자 함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함
▪ 엄마 아빠의 사연을 듣고 이해하게 됨 ▪ 소외된 친구를 알아봐 주는 눈이 생김	주변 사람을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게 됨	
▪ 오래오래 기억될 유년시절의 상처를 기억함 ▪ 늘 그리운 엄마를 애도하고 떠나보냄 ▪ 할머니의 존재가 새롭게 다가옴 ▪ 나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됨	외로웠던 경험에 대한 소중한 의미를 되새김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됨
▪ 진정한 친구를 발견함 ▪ 할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확인함	소중한 관계의 회복	
▪ 외로움에 당당해짐 ▪ 친구들과 함께하는 일상이 생김 ▪ 내게도 엄마와 같은 존재가 있어 안심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됨	

1. 부모님이 부재한 일상

조손가족 청소년들은 다른 친구들처럼 식구들이 함께하는 일상을 경험하는 일이 드물었다.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어머니 아빠, 그리고 경제활동을 위해 집을 비운 할머니로 인해 집에 혼자서 있어야 하는 날이 주를 이루었다. 참여자들의 일상은 사람의 온기가 없는 곳에서 고립된 것과 같이 적막한 외로움으로 점철되었다.

1) 세상에 혼자 방치된 것 같음

참여자1은 할머니가 일을 나가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돌아오면 반겨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 적막한 집에서 혼자 밥을 해먹고 할머니를 기다리는 것이 방과 후 일상이다. 참여자8 역시 함께하면서 도움을 받을 가족이 없는데서 오는 공허함과 방치된 것 같은 고립감이 드는 일상이 가장 외로운 경험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집에 아무도 없어요. 할머니가 일가시고, 그럼 학교 갔다 오면 집에 혼자 있어요. 밥 혼자 먹을 때 너무 아무도 없고 이러니까 외롭고, 제가 챙겨먹어 가지고 누가 밥 해줬으면 좋겠고...(참여자1)

아무래도 약간 방치되어 있는 느낌. 다들 사는 게 바쁘니까 제 감정을 봐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밖에서 제가 꿈한 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들 바쁘거나 그런 느낌. 혼자서 뭔가를 한다는 게 사실...저 혼자 하게 되고 그니까... 약간 일상적으로 외롭고.(참여자8)

이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때 순간에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며 누군가와 함께 하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다. 또한 가족은 참여자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의지가 되지 못했던 경험이 많았다. 도움을 요청할 때 들어주는 가족이 없어 상처받고 체념하고 혼자서 참는 연습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어머니 아빠가 없는 일상이 익숙하지만 생일날이나 졸업식과 같이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 받는 특별한 날에는 친구들과 달리 아무도 곁에서 축하해주는 이가 없는 것이 유난히 서러웠던 기억이 있다.

애들이 막 부모님들은 오는데 저는 안 오거든요 그러면 뭔가 뒤가 허전해요. 6학년 때도 졸업식들 왔는데 저 혼자 쓸쓸히 앉아 있었어요. 다른 학부모들 거의 다 왔는데...눈물 날 뻔했는데 참았어요...다른 학부모들은 막 사진 찍고 그러는데 막 잘했다고 안아주고 그러는데...(울음).(참여자2)

할머니 할아버지가 몸도 불편하신데 저희를 데리고 어디 나가시기에는 체력이 안 되시잖아요. 근데 가끔 애들한테서 얘기가 들려요. 자기네 이번에 해외여행 간다. 가족끼리 근처에 놀러 외식을 했다는 얘기 들려올 때마다 저는 그런 거 못하니까. 한편으로는 좀 억울하고...(참여자3)

2) 내 마음을 알아주는 가족이 없음

참여자들은 자신이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이야기들조차 진지하게 들어주거나 자신의 마음을 공감해줄 누군가가 없어 상처가 되었던 경험이 있다. 떨어져 사는 엄마는 돈만 보내주는 의무적인 관계같이 낯설고 정작 참여자들이 원하는 관심과 애정은 주지 않아 쓸쓸함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집에서 따뜻한 말, 정이 오가는 관계를 그리워하지만 그런 바람이 수용되지 않아 한편으로는 포기하면서 더욱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할머니한테 학교가기 싫다 얘기했는데, 학생이 학교가야지 막 이런 식이죠. 쯤 대충 들으시는 거 같아요. 어렸을 때 어떤 남자애가 때리고 놀리고 그런 거예요. 그거 얘기해도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냥 가니까 ...말이 쯤 거친 것도 있는 거 같아요. 평소에도 야 이 가시냐야 막 이려고 막 할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그런데 상처는 받아요...췌 애같이. 다 들어주고, 다쳐도 다치면 다쳐서 많이 아팠어? 이런 것도 듣고 싶고... 그냥 사소한 거 췌 해줬으면 좋겠어요. (참여자1)

집에서 약간 마음이 통할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저희 가족은 밀통하는 사람이 없어서 포기해버렸어요. 췌 말할 사람도 없고, 든든한 사람이 없다고 해야 할까? 내 말 잘 들어주고 유대관계가 잘 통하는데 그 사람이 저를 지켜줄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는...(참여자 2)

저희 할머니가 되게 무심하세요. 챙길 건 다 챙겨주세요 근데 툭툭 내뱉는 말들이 다 쏘아붙이고...쏘아붙이는 말들이 그냥. 저희를 감싸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참여자3)

2. 외로움의 연속

참여자들은 가정에서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여 긴장감과 쓸쓸함을 많이 느꼈다.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으로 절망감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고 이야기 하였다.

1) 긴장되기만 한 학교생활의 어려움

외로움을 자주 느끼게 되는 조손가족 청소년들에게는 학교도 역시 긴장되는 일상의 연속이었다. 친구를 사귀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들을 기회가 적어서 혼자 무리한 행동을 시도해서 친구를 사귀어 보려고 하거나, 위생에 신경 쓰지 못하여 친구들로부터 이상한 애라는 평판이 생기기도 하였다. 학교 적응에 도움 될만한 것을 상의하거나 모델링의 대상이 될 만한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자신을 보는 따가운 시선들이 늘어나고 점심을 굶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차가운 시선들에 비참함과 슬픔을 견뎌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참여자들은 친구들로부터 쏟아지는 비난의 말과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용기 없는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왜 태어났는지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고 우울증에 걸려 약을 복용하기도 하였다.

선생님마저 저한테 너가 더러운 거 아니냐고 깨끗이 하고 다니라고...할머니가 아침에 춥다고 샤워하지 말래요. 머리도 감지 말라고 했는데. 어제 했는데 왜 또 하나고 막 그래요.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옷도 약간 문제예요. 제일 큰 문제. (참여자2)

초등학교 때 4학년 때까지 제가 대변 못 가렸어요. 병설유치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줬는데, 애들이 알고 놀리는 게 스트레스....나는 아빠가 없

잖아요. 너 네 엄마는 홀수지 우리는 짝수다 두 명이 사니까 이러면서 아빠애기하고. 그래서 전학 갔죠. 엄마와 할머니는 몰라요. 전철 탈 때 죽을까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참여자4).

다시 태어나고 싶었어요. 태어나서, 자신감 있는 아이로... 외로울 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나는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죽으면 될 것을, 그냥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죽었으면 될 것을 왜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겪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참여자6)

자기 자책을 정말 심하게 하는 거 같아요. 다 나 때문에 그런 거 같고 다 내가 벌려놓은 일이니까 다 내 책임이다. 이 외로움을 느끼는 거는 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느끼는 거야. (참여자 3)

2) 나만의 벽을 쌓고 스스로 물러남

참여자들은 외로움을 체험하면서 받았던 상처들을 다시 받지 않기 위해 관계에서 거리를 두면서 철수를 시도하거나, 상처를 준 대상이 자신에게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합리화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거절당해도 상처받지 않을 가벼운 대상을 찾거나 SNS, 게임을 하면서 현재 느끼는 외로운 감정을 회피한 경험도 있다.

이 영역 밖에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정해서 약간 애들이랑 거리를. 여기 안에 못 들어오게 할라고... 여기 안에 들어오면 제가 그 사람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하니까. (참여자8)

급식실이 제일 문제였어요. 그래서 밥을 안 먹었어요. 그냥 교실에 혼자 있고, 거의 굶었죠. 싫었어요 그냥 급식실이. (참여자 1)

그때 받았던 충격이 컸던 거 같아요.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그리고 기분이 좋진 않았으니까 이런 기분을 또다시 느끼긴 싫은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애들 못 믿게 돼서 거리를 두며 지낸다고... (참여자 3)

3.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함

참여자들은 외로움을 상처와 슬픔, 우울 등으로 체험하면서 더 이상 외롭게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고, 그들이 경험한 외로움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절실함이 생겼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고 변화하고 싶다는 욕구와 함께 여러 가지 변화를 위한 노력들을 시도해보기도 하였다.

1) 과거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변화하고자 함

참여자들은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며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했던 행동에 대한 반성과 깨달음의 시간을 가져본 경험 이 있다. 참여자3은 외로움을 경험하며 체험되는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덕분에 더 나은 친구관계를 맺기 위해 스스로 단점을 고치고 용기를 내서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보기도 하는 등 관계에서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애들 못 믿는다 어른들 못 믿는다 하면서 피하고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니까 제가 그 분위기를 만든 거더라고요. 제가 피하니까 당연히 혼자 있을 수밖에 없었고, 항상 남 탓만 했었는데 제 탓이더라고요...저 혼자 안고 있었으니까 그 외로움을 더 길게 느끼지 않았을까...그 친구만큼은 나중에 뉘통수 맞느니 차라리 지금 조금 정리를 해서 그 친구를 좀 옆에 붙들고 있고 싶은 거예요 너무 저한테 너무 소중했거든요... (참여자3)

2) 주변 사람을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게 됨

참여자들은 자신의 외로운 감정에서 벗어나 타인을 이해해보려는 시도로 관점을 바꾼 경험 이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가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엄마 아빠의 사연을 듣게 되면서 엄마아빠가 새삼 밍기만한 대상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대상으로 다가오기도 하였다. 할머니의 차가운 말투와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들이 이해되기도 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였다. 엄마가 없는 허전함은 여전하지만 자신의 가족사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면서 엄마와 아빠에 대해

새롭게 이해되었고, 엄마나 할머니의 진솔한 대화가 외로운 참여자들에게는 친밀함으로 다가와 더욱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남기도 하였다.

언제한번 만나서 얘기한적 있는데 엄마가 울었어요. 같이 울었어요. 얘기하면서. 그냥 엄마애기 해줬어요. 줌...슬펄달까? 엄마가요 고등학교 때 좀 반항을 했어요. 그 때 그래서 막 엄마가 새벽에 몰래 나가고 그랬대요. 술 마시러 몰래 나가고 이랬는데 그때 할머니가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 해줬다고 거기서 더 이랬으면 더 반항했을 거라고 그때 고맙다고 했었나? 그러면서. 되게 사람 같달까? 엄마가 운거를 잘 못 봐가지고 그때 운거 아직도 생각나요. 엄마가 우니까 저도 슬퍼요.. 엄마도 그런 일이 있구나 이러면서 되게 계속 생각나는 것 같아요. (참여자1)

어느 날 들은 건데 할머니가 밤마다 우신대요. 저희가 불쌍해서. 엄마도 없이 애들이 커서 그 애기 들으니까 말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못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죄송했죠(울음). 그때 문득 애들만 외로운 게 아니라 어른들은 저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힘드시고 외롭구나...할머니가 저희 때문에 일 다 접고 내려오시고 저희만 챙기시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바람 쐬 일도 없어서 친구 분들도 없으시거든요. (참여자3)

4.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됨

참여자들은 버려진 것 같은 처절한 고립감이 들었던 경험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외로움 경험을 의미 있는 체험으로 새롭게 기억하기 시작하였다. 고군분투하던 시절들이 더 나은 친밀한 관계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이었다는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1) 외로웠던 경험에 대한 소중한 의미를 되새김

참여자들은 외로운 경험에 대해 떠올리면서 유년시절이 아픈 상처로 기억될 것 같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외로웠던 기억이 부정적인 경험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였다. 자기를 되돌아보고 성찰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자신으로 변화해보기도

하고, 그리움으로 오히려 미워했던 엄마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보며 자신의 소망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애도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절망스럽고 슬펐던 외로운 과정을 극복해나가면서 외로움의 경험이 주는 의미를 되새겨보며 조금은 성장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도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헤매는 거? 예를 들면. 어두운 숲속 길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저는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하면서 가고 있는데 하얀 빛이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어떤 손이 저한테 손을 내밀어 줘요. 전 그 손을 잡아요. 갑자기 따뜻함을 느껴요. 저는 그때 외로움에서 따스한 빛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6)

그때 외로움 느끼면서 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했던 거 같아요. 자기 성찰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나한테 괜히 일부러 그랬던 게 아니구나. 그리고 보는 시야가 점점 넓어지고 점점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 같아요 외로움 자체가 혼자가 돼서 자기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 같아요. (참여자3)

2) 소중한 관계의 회복

참여자들은 친밀한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곁에 없어서 외로웠던 경험이 있지만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 변함없이 참여자 곁에 남아 있었던 친구와 할머니에 대한 소중함이 더 크게 느껴졌고 자신들이 지켜야 할 소중한 관계에 대한 깊은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

그 사람들이 멀어지면서도 멀어졌지만 안 떠났던 애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애들은 내가 힘들어서 잠깐 자리를 비웠어도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구나. 그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같이 있고. (참여자 3)

외로울 때 할머니하고 얘기하고 할머니가 제 방에 들어와 가지고 과일 같은 것도 주시면서 이런 것도 먹어야 피부 좋아진다고 하면서 사소한 것도 되게 신경써주시는 거. 할머니는 제 옆에 항상 있다고 느끼게 해가지고...엄청 신경을 써요 진짜로.

솔직히 누가 키워주겠어요. 그래서 되게 할머니니까 키워주시는 건데 제가 할머니한테 좀 잘해야겠다는...(참여자7)

3)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됨

참여자들은 혼자 있었던 슬픈 시간들을 뒤로하며 이제 친구가 생겼고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소한 일상을 맞이한다고 이야기한다. 앞으로도 가끔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과거처럼 오래 위축되어 있기보다는 외로움 앞에 당당하게 맞설 각오를 다진다. 또한 여전히 참여자들 곁을 지켜주는 할머니로 인해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 한다.

좀 위축되기도 하고 자존감도 하락하고 그러겠지만은 이것 바꾸려고 노력할 거 같아요. 계속 외롭게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할머니가 지금 저희 챙겨주고 계시고 오히려 제가 커가지고 할머니 곁에 있는 게 더 제 교육에 더 좋은 거 같아요. 나는 지금 할머니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참여자3)

그런 친구들 있으면 괜찮죠. 집에 같이 갈 사람이 있다는 것도 있고,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 평범하게 생활하는 여중생 느낌. (참여자2)

어느 날 할머니가 쌤이랑 안 좋은 일. 할머니가 화가 났어요. 할머니가 자꾸 이렇게 가르칠 거면 이렇게 우울증 걸리게 하고 너희들이 처리도 못 할 거면서 너희들이 교사냐면서...그러다가 전학 갔어요. 그렇게 해줘서 좋았어요. (참여자4)

엄마 같은 사람들은 친구 집에서 보면 그냥 뭐 똑같이 밥해주고 그런 거 챙겨주고 그런 건 할머니가 해주니까 나도 엄마 같은 사람이 있다...(참여자5)

할머니는 매일 너의 등 뒤에서 응원하고 있어 위로해주시니까 울컥하고 마음에 위로가 되고, 할머니가 따스한 햇살인 거예요. 할머니 품에 안기면요 차가웠던 그 얼어붙은 내 마음도 약간 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왔어요. 한마디로 할머니는 저의 구원자. 구원을 손길이라고 해야 되나? (참여자6)

그런 친구가 생겼다는 게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도감?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급식실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친구, 고등학교 때도 같이 다닐 수 있는 친구, 또 애기도 잘 들어주고 힘들 때 친구가 가장 역할이 큰 거 같아요. 그냥 옆에 같이 있는 게 좋아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고, 편안하고...(참여자1)

IV. 결 론

본 연구는 조손가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참여자가 중심이 되어 그들의 언어로 실제적이고 생생한 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외로움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정서를 탐색해볼 수 있었다. 조손가족 청소년들은 가정이라는 물리적인 환경 안에서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없어서 오는 외로움을 경험하였고 정서적으로는 유대감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대화나 기회가 부족하여 오는 심리적인 외로움이 공통적인 경험으로 주를 이루었다. 떨어져 사는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이나 가끔 소식을 전하는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조손가족 청소년들에게 원망과 미움,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과 절망 등에서 비롯된 외로움을 경험하게 하였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체험하는 감정에 대해 외로움이라는 현상으로 두루뭉술하게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질적 연구를 통해 ‘세상에 혼자 방치된 것 같은 철저한 고독감’, ‘비수가 되어 쏘인 말들로 인한 상처’, ‘초라한 자신을 느낄 때의 슬픔과 절망’, ‘철저한 배제로 인한 소외감’, ‘의미 없는 대상을 찾아야 하는 비참함과 공허함’ 등 고통스러운 정서 이면에 담긴 세밀하고 다양한 감정과 의미를 표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감정은 상황적, 관계적 맥락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예컨대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건강한 할머니와 유대가 높았던 참여자의 경우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에서 오는 외로움 보다는 또래 관계에서의 외로움이 더욱 크게 경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와 관계가 안 좋거나 유대가 거의 없는 참여자의 경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조부모가 집을 오래 비우는 참여자의 경우에는 적절한 양육에 필요한 생활 태도에 대한 교육부터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는 것 까지 스스로 챙겨야 하는 어려움이 생활전반에 걸쳐 나타면서 삶에서 철저히 방치 된 듯한 외로움으로 경험되기도 하였다.

기존의 조손가족과 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조손가족 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문제의 예방 차원에서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경험했던 부정적 측면과 더불어 긍정적 측면을 모두 거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즉, 부모의 부재로 인해 다소 빈약한 가족자원으로 위축되고 우울해지기도 하는 반면, 자신이 조부모로부터 돌봄을 받기만 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조부모를 이해하기도 하고 조부모와의 또 다른 애착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조손부모가 청소년들에게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조손가족 청소년들은 어쩔 수 없는 환경 변화로 인하여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불안정할 수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교사와 애착관계에도 적용되어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려웠다. 참여자들에 대한 교사의 부정적 태도는 참여자들에게 매우 강력한 두려움을 느끼게도 하였지만, 친밀감을 적게 느꼈던 부모관계와는 달리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도 하여 참여자들마다 경험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손가족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질적 연구의 활성화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조손가족 청소년이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외로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탐색하여 청소년 및 조손가족의 외로움이라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조손가족 청소년은 8명으로 여성과 남성의 성비가 7대1로 성비의 대표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또한 참여자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관련기관을 통해 평균 10회기 이상의 상담 경험이 있는 청소년으로, 상담을 통하여 정서적 안정과 친밀한 관계 맺기, 통찰의 경험이 있었던 참여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2~3회기의 면담을 통해 참여자의 내면에 잠재되어 진 경험을 충분히 끄집어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조손가족 청소년들의 외로움 현상을 보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요약에 근거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조손가족 청소년들은 부모의 부재로 인해 혼자 지내야 하

는 시간이 많아 정서적 외로움을 자주 경험하였다. 이는 Weiss(1973)가 설명한 가족 및 또래집단과 같이 중요한 애착 대상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으로, 사회적 외로움과 구분되는 정서적 외로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Sofka(2004)는 관계 상실로 인한 외로움을 이별, 이혼, 친구관계의 변화와 같이 친밀한 사람과 더 이상 정서적, 신체적으로 관계할 수 없이 단절되어 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참여자들이 보고한 관계 상실과 친밀한 관계 부재에서 오는 정서적 외로움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황 변화나 상실로 인해 친밀함이나 인간적인 접촉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결국 외로움을 경험하게 된다(윤희정, 김영근, 2016; Shearer & Davidhizer, 1994)는 선행연구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시기가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또래 관계로 대상이 점차 변화하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조손가족 청소년이 가족의 부재로 오는 정서적 외로움 감소를 위해서는 학교생활의 적응 및 친구관계에서의 성공적 경험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즉, 조손가족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주변의 관심과 보호를 필요로 하였는데 신체적, 경제적으로 지지기반이 약한 노인인 조부모님을 통해 양육을 받고 있어 돌봄의 세밀한 부분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사회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멘토 지원, 가정방문 도우미를 통한 환경 개선 등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보호자원이 되어 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부모-손자녀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의 발달 과정, 심리적 증상, 긍정적인 의사소통 기술 등 다양한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적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조부모가 느끼는 손자녀와의 소통 문제를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손 관계의 안정적 관계 형성을 위해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가족단위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

둘째, 조손가족 청소년들의 부모부재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이나 친구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청결이나 기본 생활 습관, 대인관계에 필요한 적절한 관계 맺기 기술 등의 미숙으로 인해 학교에서 소외되거나 놀림을 받기도 하였다. 이런 결과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들이 경험하는 물질적, 법적, 심리·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려움을 보고한 선행연구(오선영, 장혜진, 조윤정, 2006; Kelley, 1993)를 지지하고 있다. 학교생활의 대인관계에서 오는 외로움은 정서적인 측면보다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외로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외로움을 대인적·사회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사회적 관계의 특성이 개인의 외로움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

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였다(이진희, 이기숙, 2012; 정유진, 김광웅, 2006). 이러한 견지에서 청소년들의 사회적 외로움 감소를 위해 사회적 지지 차원에서의 조손가족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은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였으며, 지원의 초점 또한 한 부모의 자녀 양육과 자립지원에 있어 손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노인들의 돌봄에 필요한 정보나 프로그램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조손 가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이해의 증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통해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생활지원 등 법적 제도 마련과 함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반면, 조손가족 청소년의 외로움이라는 맥락에서는 교사와의 관계의 중요성이 보고되지 않았다. 이는 조손가족 청소년이 외로움을 증가시키거나 경감시키는데 교사와의 관계가 친구나 가족관계에 비해 비교적 영향력이 적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또래관계에서의 외로움 경험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위축되고 자신감이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시기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시기로 또래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또래관계에서 좌절을 경험한 참여자들의 보고는 대인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되고 자신이 사교적으로 무능하고 쓸모없다는 자기 비하적 신념을 갖게 된다(Horowitz et al., 1982). 더욱이 대인 상황에서 타인을 비호의적이고(Henwood & Solano, 1994),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기도 한다(Ernst & Cacioppo, 1999)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된 조손가족의 아동들이 자아존중감이 낮고(구향숙, 2013; 박옥임, 김정숙, 2006), 자아존중감이 떨어질 경우, 우울 수준이 높으며(성지혜, 2001), 자기표현력이 떨어지거나(구향숙, 2013), 사회적 관계서도 위축되는 경향(구향숙, 2013; 박옥임, 김정숙, 2006)등의 연구결과를 비취볼 때 조손가족 청소년들에게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대안적인 활동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 예컨대, 대인관계 기술이나 의사소통 기술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집단원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집단에서의 지지경험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또래집단에서 자신을 개방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넷째, 참여자들은 외로움에서 슬픔, 상처, 홀로 버려진 듯한 막막함, 긴장과 우울, 불신 등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나타냈다. 심리적 상실은 꿈을 포기하거나 목표를

잃는 것과 같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경험들을 일컫는다(윤운영, 2018; Sofka, 2004). 이처럼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의 경우 외로움을 상실감 또는 상실감에서 오는 슬픔으로 체험하기도 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서적 지지 자원이 필요하며 정서적 어려움의 해소로 학교생활의 적응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학교 중도탈락 청소년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소외감이라는 기존 연구 결과(임정아, 진영선, 2017; 안영숙, 심혜숙, 2013)를 볼 때, 청소년이 학교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관계 맺음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여 정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및 지역사회 자원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에 조손가족 청소년들이 다양한 정서를 해소하여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권장할 필요가 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축제에 청소년들의 참여코너를 확장하고 창의적이고 독특한 청소년의 열정을 높이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주변 어른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존중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사회속에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개선 움직임이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외로웠던 관계에서 벗어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는 외로움을 불안함 속에서도 사회적 소통의 장으로 참여하게 하는 추진력인 ‘동기적 힘’으로 본 Sullivan(1953)의 선행연구를 지지한다. 실존주의적 이론에 의하면 외로움은 사랑(love)과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Donaldson & Watson, 1996)고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친구를 통해 다양한 관계 회복과 학교생활 적응 및 자신감 회복 등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어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외로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과 동시에 힘들었던 외로움 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의 재구성성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로움을 개인적 성장과 창의성을 이끌 수 있는 긍정적인 것으로 여기고(Moustakas, 1961) 외로움을 통해 개인의 자율성을 키우고 자아통합의 수준을 높이는 동인이 되므로 긍정적인 경험이라고 주장한(이수진, 2012; Applebaum, 1978) 여러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손가족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지지 자원을 마련해주고 자신의 경험을 새롭게 탐색하고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인 상담적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상담 장면에

서 청소년들이 또래와 비슷한 수준의 성숙한 관계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대인관계 기술 훈련, 감수성 훈련, 마음수련과 같은 집단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겠다.

한편, 외로움이 높을수록 때로는 반사회적으로 행동한다(김주희, 강성희, 1994)는 선행연구나, 외로운 사람일수록 지나치게 자신의 욕구만을 내세우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며 타인을 배려하거나 공감하기 어려우며, 타인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장윤아, 2014)는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오히려 외로움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는 대인관계에서 위축되고 철수하려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지속되기보다는 스스로 그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통해 해결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참여자가 상담경험이 10회기 이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볼 때, 청소년들이 부적응적 행동을 적극적으로 변화하는데 상담의 역할이 자원으로 활용됨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청소년 상담자는 대인관계 및 외로움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상담 개입과 조력자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질적인 상담 개입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강성례, 이윤정 (2015). 기혼여성의 불임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여성학논집**, 32(2), 61-89. doi:10.18341/wsr.2015.32.2.61
- 강성례 (2012). 30대 기혼여성간호사의 노동과 소진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여성학논집**, 29(1), 337-105. doi:10.18341/wsr.2012.29.1.41
- 구향숙 (2013). 조손가족을 위한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손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가족관계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5(3), 271-294.
- 권석만 (1995). 대학생의 대인관계 부적응에 대한 인지-행동적 설명모형. **학생연구**, 30(1), 38-63.
- 권영실, 이해영, 김승철 (2016). 대인관계 욕구의 좌절이 삶의 무의미성 및 목적성 지각과 고통감내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4), 877-893. doi:10.17315/kjhp.2016.21.4.012
- 김기창 (2015).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9(1), 201-225.
- 김옥수 (1998). 사회적 지지가 미국 이민노인의 외로움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인간호학회**, 10(2), 311-321. doi:10.13067/JKIECS.2015.10.2.311
- 김정운 (2007).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종범, 한종철 (2001). 인터넷 중독 하위 집단의 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207-219.
- 김주희, 강성희 (1994). 외로움에 대한 이론적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8, 233-253.
- 김지영 (2017). 디지털 시대 청소년의 외로움, 스트레스, 스마트폰 중독의 영향관계. **디지털융복합연구**, 15(9), 335-343. doi:10.14400/JDC.2017.15.9.335
- 류정희 (2011). **저소득층 조손 가정의 특성과 그들을 위한 가족지원체계에 관한 질적 연구: 아이 돌보미 이용자 가정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미자 (2008). **조손가족 청소년의 문제행동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옥임, 김정숙 (2006). 조손가족과 3세대가족 손자녀의 가족생활적응 및 자존감 비교.

- 한국가족복지학, 11(3), 129-139.
- 성지혜 (2001). 빈곤한 조부모 손자녀세대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 복지관 서비스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희주 (2016). 청소년의 외로움과 자기감시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 적응의 조절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민선, 박희현 (2012). 여고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이 외로움과 역량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지, 33(2), 37-53. doi:10.5723/KJCS.2012.33.2.37
- 안영숙, 심혜숙 (2013). 학교중도탈락 청소년들의 복교 후 학교적응 과정과 유형. 청소년 상담연구, 12(1), 67-105. doi:10.35151/kyci.2013.21.1.004
- 오선영, 장혜진, 조윤정 (2006). 조손가정 아동의 생활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아동 권리학회, 10(4), 557-604.
- 윤은영 (2018). 청소년기 상실 경험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윤희정, 김영근 (2016). 내현적 자기에, 내면화된 수치심,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 및 외로움의 구조적 관계. 한국교육치료학회, 8(3), 549-568.
- 이수진 (2012). 외로움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도식의 조절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옥실 (2009). 청소년의 위기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특성에 대한 연구.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진희 (2012). 유아의 외로움에 대한 이해와 인식. 육아교육학회, 32(5), 297-320. doi:10.18023/kjece.2012.32.5.014
- 이창식, 박미자 (2009). 조손가족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3세대가족 청소년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4), 151-172.
- 이현심, 박주현, 최덕경 (2011).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청소년복지연구, 13(4), 309-314. doi:10.9716/KITS.2014.13.4.309
- 이현정 (1994). 아동이 지각한 교우관계의 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원우회, 12, 191-220.
- 이형초, 안창일 (2002). 인터넷 게임중독의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3), 463-486.

- 임정아, 진영선 (2017). 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 **청소년문화포럼**, 52, 133-162. doi:10.17854/ffyc.2017.10.52.133
- 장윤아 (2014). **청소년의 외로움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부정적 인지의 매개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정은 (2016). **중학생의 외로움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휘숙 (1993). **청년심리학**. 서울: 도서출판 장승.
- 정순원 (2009). **이혼가정 청소년들의 가족해체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 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유진, 김광웅 (2006). 또래관계 및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 217-232.
- 정혜경 (2016). 청소년의 외로움, 분노, 자살생각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 학회지**, 11(4), 89-99. doi:10.21097/ksw.2016.11.11.4.89
- 조명남 (2017).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 심리적 반발심, 외로움에 따른 군집 유형별 학교 중퇴의도**.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주소희, 이경은, 권지성 (2009). 주제발표: 조손가족을 위한 가족사회복지실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9(1), 61-93.
- 최명구, 신은영 (2003). 자아 노출대상의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노출 수준연구. **사회 교육과학연구**, 6(2), 93-108.
- 천미영, 김희정 (2011). 조손가정 아동의 적응유연성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 가족치료 학회지**, 19(3), 159-182. doi:10.9725/KSTLE.2003.19.3.159
- 최해경 (2002). 저소득층 조손가정 여성노인의 우울감과 관련요인연구. **한국노년학회**, 22(3), 207-222.
- 통계청 (2010). **(2010 인구주택총조사)인구·가구·주택 주요지표**.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7). 월·분기·연간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G&conn_path=I2에서 2019년 04월 24일 인출.
- 허정화, 김진숙 (2014). 청소년 외로움 척도 개발과 타당화. **상담학연구**, 15(4), 1549-1570.
- Applebaum, F. (1978). Loneliness: A taxonomy and psychodynamic view. *Clinical*

- Social Work Journal*, 41(1), 13-20. doi:10.1007/BF00760503
- Asher, S. R., & Paquett, J. A. (2003). Loneliness and peer relations in childhood.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123(3), 71-74.
- Bowlby, J. (1979). *The making &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 Brage, D., Meredith, W., & Woodward, J. (1993). Correlates of loneliness among midwestern adolescents. *Adolescence*, 28(111), 685-694.
- Brennan, T. (1982). Loneliness at adolescence. In L. A., Peplau, & D. Perlman (Eds.),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pp. 269-290). New York: Wiley.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cal views it. In Valle, & M. Kings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pp. 48-71). NY: Oxford University Press.
- Colman, Marilyn, Ganong, Lawrence. (1987). An Evaluation of the Stepfamily Self-Help Literatur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36(1), 61-65.
- Corsano, P., Majorano, M., & Champretavy, L. (2006).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The contribu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 and experience of being alone. *Adolescence*, 41(162), 341.
- Donaldson, J. M., & Watson, R. (1996). Loneliness in elderly people: An important area for nursing research,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4, 952-959. doi:10.1111/j.1365-2648.1996.tb02931
- Ernst, J. M., & Cacioppo, J. T. (1999). Lonely heart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loneliness. *Applied & Preventive Psychology*, 8, 1-22. doi:10.1016/S0962-1849(99)80008-0
- Granziano, W. G., Brothen, T., & Berscheid, E. (1980). Attention, attraction,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reaction to critic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2), 193-202. doi:10.1037/0022-3514.38.2.193
- Guba, E. G., & Lincoln, Y. S. (1989).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Newbury

- Park, CA: Sage Publications.
- Heinrich, L. M., & Gullone, E. (2006). The clinical significance of loneliness: A literature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6), 695-718. doi:10.1016/j.cpr.2006.04.002
- Henwood, P. G., & Solano, C. H. (1994). Loneliness in Young-Children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5(1), 35-45. doi:10.1080/00221325.1994.9914756
- Horowitz, L. M., French, R. de S., & Anderson, C. A. (1982). The prototype of a lonely person. In L. A. Peplau, & D. Perlman (Eds.), *Loneliness: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pp. 183-205). NY: Willey.
- Hojat, M. (1987). A psychodynamic view of loneliness and mother-child relationship: A review of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empirical finding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 89-104.
- Kelly, S. J. (1993). Care giver stress in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Imag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5, 331-337.
- Lynos, J. B. (2004). Family systems,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and loneliness. A Test of mediating and moderating models. A dissertation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Department of Psychology New York University, New York, NY, U.S.A.
- Moustakas, C. E. (1961). *Loneliness*. New York: Prentice-Hall.
- Schinka, K. C., VanDulmen, M. H. M., Bossarte, R., & Swahn, M. (2012). Association between loneliness and suicidality during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 Longitudinal effects and the role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Journal of Psychology*, 146(1-2), 105-118. doi:10.1080/00223980.2011.584084
- Seiffge-Krenke, I. (1995). *Stress, coping, and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Mahwah, NJ: Laurence Erlbaum.
- Shearer, R., & Davidhizer, R. (1994). It can be never be the way it was: Helping

- elderly women adjust to change and loss. *Home Health Care Nurse*, 12(4), 60-65.
- Sofka, C. J. (2004). Assessing loss reaction among older adults: Strategies to evaluate the impact of September 11, 2001.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6(3), 260-281.
- Stewart, W. (2004). The role of perceived loneliness and isolation in the relapse from recovery in patients with anorexia and bulimia nervosa.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32(2), 185-196. doi:10.1023/B:CSOW.0000024327.55424.a9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W. W Norton & Co.
- Vancouver, J. B., Thompson, C. M., & Williams, A. A. (2001). The changing signs in the relationships among self-efficacy, personal goals, and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4), 605-620. doi:10.1037/0021-9010.86.4.605
- Van Manen, M. (1994). **체험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론** (신경림, 안규남 역.). 서울: 동녘.
- Weiss, R. S. (1973). *Loneliness: The experience of emotional and social isolation*. Cambridge, MA: MIT Press.
- Woodward, J. C., & Frank, B. D. (1988). Rural adolescent loneliness and coping strategies. *Adolescence*, 23(91), 559-565.
- Young, K. S. (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s. *Cyber Psychology and Behavior*, 1, 237-244.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loneliness amongst adolescents in grandparent-grandchild families

Lee, Okjoo* · Yu, Kuml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better understand the experiences of loneliness among adolescents in grandparent-grandchild families. For this purpose, the study utilized a qualitative approach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loneliness. A total of 8 adolesc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he data were analyzed based on Colaizzi's approach and the results were divided into 4 categories, and 12 subject groups. The 12 subjects were categorized as 'I feel abandoned and alone in the world', 'a family that does not know my heart', 'tensions and difficulties in school life', 'feelings of misery by gazing at myself', 'sorrow', 'building a wall and retreating into myself', 'facing my own past', 'understanding people around me with a new perspective', 'a change in me', 'a reflection of the precious meaning of my experience of loneliness', 'recovery of precious relationships', and 'I know that I am not alone'.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loneliness, adolescents, grandparent-grandchild family

투고일: 2019. 3. 11, 심사일: 2019. 5. 3, 심사완료일: 2019. 5. 15

* Pyeongtaek Youth Counseling & Welfare Center

** Catholic University